KIA 최지민 "신인왕이요? … 길게 보고 가야죠"

최지민

16·17일 삼성전에서 프로 첫 승·세이브 수확
24일에는 한화전서 1.2이닝 무실점 '2승'
"마운드 오르기가 즐거워"

"신인왕이요? 시즌은 깁니다."

올 시즌 KBO리그에서는 쟁쟁한 신인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최근 '대박 신인'이 연이어 탄생한 KIA도 예외는 아니다.

일단 충암고 출신의 좌완 윤영철은 기대대로 특급 신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올 시즌 프로 무대에 뛰어든 윤영철은 팀내 선발 경쟁에서 승자가 됐고, 매 경기 성장세를 보여주며 신인왕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경쟁구도도 만들어졌다. 또 다른 좌완 최지민이 반전의 시즌을 보내면서 주가가 급상승 했다.

최지민은 강릉고를 졸업하고 지난해 프로 생활을 시작한 고졸 2년차 선수. 지난 시즌 1군 무대에서 6이닝만 소화했던 만큼 '5년 이내 누적 30이닝'이라는 신인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최지민은 지난 16·17일 삼성전에서 프로 첫승과 세이브를 연달아 수확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16일 앤더슨에 이어 1-2로 뒤진 상황에서 두 번째 투수로 나와 1.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고, 타자들이 7회초 대거 7점을 뽑아주면서 최지민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17일에는 마무리 정해영이 흔들리자 9회말 1사 2루에 출격해 1점차 리드를 지키고 프로 첫 세이브까지 수확했다.

최지민은 24일 한화전에서는 윤영철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나와 2승째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윤영철이 선발로 출격해 6이닝 3피안타(1피홈런) 3볼넷 3탈삼진 1실점의 호투로 '신인왕' 어필을 했고, 1-1로 맞선 7회 나온 최지민도 1.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8회 소크라테스가 결승 투런을 장식해주면서 승리는 최지민의 몫이 됐다. 스피드 상승 속 자신감을 더하면서 최지민의 '즐거운 야구'가 계속되고 있다.

승리와 세이브가 연달아 기록됐던 삼성전에 대해서도 최지민은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신기하게 긴장이 하나도 안 됐다. 긴장보다는 이런 상황일수록 막고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며 "첫 승한 날 아웃카운트 하나 잡고 내려오니까 타자들이 많이 쳐줬다. 첫 승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공격이 너무 길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랐다. (양)현종, (이)의리 선배한테 물어봤는데 평지에서 (연습 피칭)하는 것보다 불펜도 가까우니 나가서 던지고 오라고 이야기해줬다. 올라가기 전에도 아웃카운트 하나씩만 잡으려는 생각으로 하라고 이야기해주셔서 편하게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좋으니까 긴장보다는 마운드 올라가는 자체가 재미있는 것 같다. 최대한 마운드에서 표정에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잘 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신인왕 후보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욕심은 없다.

최지민은 "신인왕 후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직은 생각이 없다. 시즌은 길다. 시즌 초에만 잘한다고 해서 후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시즌 끝날 때 되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경험은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결승선을 바라보게 하는 교훈이 됐다.

최지민은 "프로 지명 받기 전에 하고 싶었던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 시즌 치르면서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껴서 그 꿈들이 많이 없어졌다"면서도 "아직 50%도 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던지는 부분이 중요하다. 아직도 반대 투구가 있다. 반대투구를 줄이고, 변화구 제구가 더 완벽해지면 타자 잡는데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밀함을 더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수원 상대로 연승 도전 나선다

28일 K리그1 15라운드
FA컵, 이랜드 꺾고 8강 진출

FA컵 경기에서 승리 DNA를 깨운 광주FC가 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28일 오후 6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를 상대로 K리그1 2023 15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수원으로 가는 광주의 발걸음이 가볍다.

광주는 지난 24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이랜드 FC와의 2023 하나원큐 FA컵 16강전에서 허율의 버저비터골로 1-0 승리를 거두고 8강 진출에 성공했다.

리그 7경기 연속 무승 부진에 빠졌던 광주는 오랜 만에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분위기를 살렸다.

또한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비축하고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선수들의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다.

지난 20일 인천 원정에 이어 서울 그리고 수원으로 이어지는 원정 3연전 강행군 중인 광주는 분위기를 이어 연승으로 승점 3점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FA컵 경기를 통해 허율이 본인의 가치를 증명했다.

후반 42분 교체 투입된 허율은 적극적인 압박과 연계 플레이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경기 종료 직전에는 박한빈의 패스를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극적인 결승골도 장식했다.

골로 자신감을 더한 허율의 활약과 함께 이으뜸의 부상 복귀도 반갑다.

시즌 전 연습경기에서 쇄골 골절 부상을 당했던 이으뜸은 이 경기에서 후반 34분 신창무을 대신해 교체 멤버로 들어가면서 올 시즌 첫 경기를 소화했다.

FA컵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한 광주가 기세를 이어 28일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연승에 도전한다. 사진은 앞선 수원FC와의 맞대결에서 이민기가 골을 기록한 뒤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왼발의 달인'이자 팀의 정신적 지주인 이으뜸이 돌아오면서 광주는 세트피스와 공격에서 기술과 경험을 더하게 됐다.

이번 상대 수원FC의 공격라인이 눈에 띈다.

6골을 기록하고 있는 '주포' 라스를 비롯해 이승우, 무릴로, 이광혁, 윤빛가람으로 이어지는 화력라인이 막강하다. 박주호와 이용, 최보경 등 베테랑 선수들은 중원과 수비를 책임지고 있다.

두 팀은 올 시즌 4승 3무 7패의 전적으로 나란히 승점 15점을 기록하고 있다. 순위는 수원(16점)이 득점에서 광주(15점)보다 1점 앞서면서 8위다. 광주는 9위에서 수원FC를 쫓고 있다.

역대전적에서는 광주가 앞선다.

광주는 앞선 대결에서 15승 4무 6패로 수원FC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광주가 2-0 승리를 거두고 우위를 이어갔다.

또 수원FC는 최근 3경기에서 10실점하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는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수원FC를 상대로 강한 전방 압박을 하면서 광주스타일의 공격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FA컵 8강 진출에 성공한 광주가 상승세를 이어 수원FC를 꺾고 리그 경기에서도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29일 시즌 최종전 11호 골 사냥

토트넘, 리즈 유나이티드 원정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사진)이 29일(한국시간) 2022-2023시즌 최종전을 치른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29일 0시 30분 영국 리즈의 엘런드 로드에서 2022-2023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리즈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에 나선다.

리즈 유나이티드전은 이번 시즌 토트넘의 마지막 경기다.

토트넘은 37라운드까지 17승 6무 14패를 기록, 20개 구단 가운데 8위를 달리고 있다.

토트넘이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주관 클럽 대항전에 나가려면 최소한 7위를 해야 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4위까지 UEFA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고, 5위와 6위는 유로파리그, 7위는 유로파 콘퍼런스 리그에 출전한다.

토트넘은 이미 6위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과는 승점 5 차이로 벌어져 유로파리그 진출은 좌절됐다.

7위 가능성은 남아 있다. 7위 애스턴 빌라가 17승 7무 13패, 승점 58을 기록 중이기 때문이다.

애스턴 빌라는 토트넘과 같은 시간에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을 상대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은 최종전 결과와 관계 없이 6위가 확정됐기 때문에 최종전 동기 부여가 크지 않은 편이다.

토트넘이 최종전에서 이기고 애스턴 빌라가 비기거나 패해야 토트넘이 7위에 오를 수 있다.

토트넘이 UEFA 클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한 최근 사례는 2009-2010시즌이다. 토트넘은 직전 2008-2009시즌 리그 8위에 머물렀다.

손흥민 개인으로는 리그 11호 골에 도전한다. 2021-2022시즌 23골을 넣어 아시아 국적 선수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는 안면 부상 등 악재로 인해 10골을 기록 중이다.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이던 2015-2016시즌 4골 이후로는 2019-2020시즌 11골이 손흥민의 한 시즌 리그 최소 골이다.

손흥민은 1일 리버풀과 경기에서 리그 10호 골을 넣고 7시즌 연속 10골 이상 기록을 이어갔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뛰는 이강인(마요르카)은 아직 이번 시즌 리그 경기를 세 번이나 남겼다.

26일 오전 2시 30분 '진정' 발렌시아를 상대하고 29일 오전 2시에는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한 FC바르셀로나와 만난다.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이 불거진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의 김민재(나폴리)는 28일 밤 10시 볼로냐와 37라운드 경기를 앞뒀다.

/연합뉴스

"우리 모두 비니시우스다" 레알 선수들 인종차별 반대

'우리 모두 비니시우스다.'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는 25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라요 바예카노를 상대로 2022-2023시즌 프리메라리가 36라운드 홈 경기를 치렀다.

브라질 출신의 특급 골잡이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인종차별을 당한 발렌시아와 원정 경기 이후 레알 마드리드가 처음 소화한 경기였다.

경기 시작 전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어떤 골 세리머니보다도 특별한 퍼포먼스를 펼쳐 보였다.

선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린 모든 선수가 비니시우스의 이름과 등번호 '20'이 들어간 유니폼을 맞춰 입고 그라운드에 선 것이다. 비니시우스와 연대하겠다는 의미였다.

팬들도 관중석에 '우리는 비니시우스와 하나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걸어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라요 바예카노도 인종차별 앞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와 한 편이었다.

양 팀 선발 출전 선수들은 '인종차별을 축구에서 쫓아내자'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함께 들어 보였다.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 회장과 나란히 관중석에 앉은 비니시우스를 향해 팬들은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비니시우스는 응원에 화답하는 몸짓을 담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비니시우스는 직전 경기에서 받은 퇴장 징계는 취소됐지만, 무릎에 경미한 부상을 당해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지난 22일 발렌시아 홈인 메스타야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 발렌시아의 경기 후반전에 발렌시아 팬들이 비니시우스에게 '원숭이'라고 외쳐 충돌로 이어졌다.

비니시우스는 경기 막판 발렌시아 선수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퇴장당하는 악재까지 겹쳤다.

비니시우스는 경기가 끝난 뒤 소셜미디어(SNS)에 "이번이 처음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니다. 라리가에서는 인종 차별이 일상화됐다"라고 적었다.

/연합뉴스